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호주 선진교육제도 비교 시찰 관련
공 무 국 외 여 행 보 고 서

2023년도 4월

서울특별시의회
교 육 위 원 회

Ⅰ 공무국외여행 추진 개요

1 공무국외활동 개요

☐ 방문국 : 호주(시드니)

☐ 여행목적

○ 선진 교육제도 탐방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적용

- 기초학력 진단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례 조사 및 자료 수집
- 학교폭력, 다문화, 진로·직업, 도서관 평생학습 분야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 제도와 정책을 탐색
- IT 기술을 접목한 선진 교육시설 시찰을 통해 국내에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개선방향 모색

☐ 여행 기간 : 2023. 3. 21.(화) ~ 3. 28.(화) 〔6박 8일〕

☐ 방문단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0명

연번	의원명	직위	주요 업무사항	비고
1	이 승 미	위원장	공무국외활동 총괄	단장
2	고 광 민	부위원장	기초학력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3	김 혜 영	위원	기초학력 평가체계 일반화 방안 연구	
4	심 미 경	위원	기초학력 평가에 따른 교육주체들의 파트너십 연구	
5	이 새 날	위원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언어교육 방안 연구	
6	이 종 태	위원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글의 우수성 홍보방안 연구	
7	이 희 원	위원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학습 효과 연구	

연번	의원명	직위	주요 업무사항	비고
8	정 지 웅	위원	따돌림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 연구	
9	채 수 지	위원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 개선 방안 연구	
10	우 형 찬	위원	미래형 교육을 대비한 그린스마트 모델 연구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4명**

연번	성명	직위	주요 업무사항	비고
1	김 창 범	교육수석전문위원	단장 보좌, 시찰단 수행 총괄	
2	박 광 선	의사지원팀장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 보좌	
3	최 원 종	입법조사관	현지 일정 관리 및 방문 기관 담당자 접촉 등	
4	김 지 수	입법조사관	방문기관 및 시찰기관 자료 수집 등	

❑ 방문 기관

방 문 기 관	주요 방문목적
① 시드니 한국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호주 초중고 교육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사전 소개 및 강의(국내 교육제도 및 정책 비교)
②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 교육청 (NSW Department of Education)	NSW주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 획득
③ 홈부쉬 남자고등학교 (Homebush Boys High School)	- 호주 내 최고 등급의 HSC(Higher School Certificate)성취 과정 연구 (교육내용, 제도적 지원방안 등) -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 정책 성공 사례 조사
④ 채스우드 공립초등학교 (Chatswood Public School)	- 교과별 기초학력 평가 및 개선과정의 적용과정 연구 - 외국인을 고려한 이중언어(영어·한국어) 수업 참관 후 국내 적용방법 모색

방 문 기 관	주요 방문목적
⑤ 중등언어학교 (Secondary College of Languages)	- 다문화 학생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언어교육 및 문화교류 기회 제공에 대한 시사점 획득
⑥ 마스던 공립중고등학교 (Marsden High School)	-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Device 강의 구현이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학교 시설 구축현황 조사 - 국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관련 스마트 시설 및 운용 측면의 시사점 획득
⑦ 기술 미래교육 직업학교 (TAPE NSW Ultimo)	지역별 취업수요에 부응한 기술학교로 수요자 지향 맞춤형 직업계고 육성방안 모색(한국 직업계고 해외현장 학습 참여중)
⑧ NSW 주립도서관 (State Library of NSW)	주 전역의 369개 도서관과 연계한 방대한 양의 도서를 55개의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기관에 제공하여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정책에 시사점 도출
⑨ 6·25 한국전 참전기념비 참배 (Korean War Memorial)	한국전에서 희생,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공훈과 명예를 선양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

2 공무국외활동 추진 경위

□ 방문국가 및 기관 선정 사전논의

○ **공무국외활동 관련 간담회 개최(1차)**

- 일시 : ′22. 11. 2.(수) 09:30
- 장소 : 교육위원회 간담회장
- 참석 : 총 25명(교육위원회 위원 13명, 전문위원실 직원 12명)
- 내용 : 연구주제 및 방문지 선정(호주), 방문기관 논의(NSW주 정부 교육청 등)

○ **공무국외활동 관련 간담회 개최(2차)**

- 일시 : ′22. 11. 17.(목)
- 참석 : 총 18명(교육위원회 위원 13명, 전문위원실 직원 5명)
- 내용 : 호주의 선진 해외 비교시찰 세부 추진계획 논의

○ **공무국외활동 관련 위원장단 간담회 개최(3차)**

- 일시 : ′22. 12. 19.(월)
- 장소 : 교육위원회 간담회장
- 참석 : 총 6명(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전문위원실 직원 3명)
- 내용 : 방문기관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논의, 세부일정 점검, 여비 안내 등

※ 출국 전 전문가 간담회 추가 진행 예정

○ **해외 비교시찰관련 전문가 초청 사전 간담회 개최**

- 일시 : ′23. 2. 23.(목) 16:30
- 장소 : 의원회관 7-3 회의실
- 강사 : 강수환 용곡중학교 교장(前 호주 한국교육원 원장)
- 참석 : 총 12명(교육위원회 위원 5명, 수행 직원 7명)
- 내용 : 호주 교육기관 방문과 현장시찰 등 연수 일정에 대한 조언,
  호주 초·중·고교 교육제도 관련 질의응답

❑ 교육 정책 연구주제 선정 관련 주요 논의

1. 서울교육 학력향상에 대한 의회적 관심 증대

○ **제1차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 활동기간 : 2022.08.~2023.08. 까지
- 주요활동
  1) 서울시의 온라인플랫폼(서울런) 학습 효과 및 개선방안 마련
  2)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효과적 추진
  3) 서울특별시의회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4)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시스템 마련

○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 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

- 일시 : '22.9.2.(금) 16:00~18:00
- 장소 :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 심임섭(복잡성교육학회장),
  김호월(인터넷신문 교육앤시민편집장)
- 주제 : OECD 관점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

○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 일시 : '22.12.14.(수) 14:00~16:00
- 장소 :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발제 : 이상종(광운인공지능고 교장)
- 주제 :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 토론회**

- 일시 : '21.08.26.(목) 14:30~17:00
- 발제 : 고인룡(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성원(생활기술과 늘이 멋진연구소 소장) 송병준(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연구팀장) 이윤하(건축가,삼육대학교 교수) 장현정(서울하늘숲초등학교 학부모)
- 주제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통한 새로운 미래교육의 준비

3 여 행 일 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요일정	비고
3/21(화) (1일차)	인 천	항공	20:00	인천 국제공항	이동
3/22(수) (2일차)	호 주 (시드니)	항공	08:30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시드니 1박
		전용 차량	오후	◦기관방문 : Korea Education Center (시드니 한국교육원)	
3/23(목) (3일차)	호 주 (시드니)	전용 차량	오전	◦기관방문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 교육청)	시드니 1박
			오후	◦현장시찰 :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뉴사우스웨일스 주립도서관)	
3/24(금) (4일차)	호 주 (시드니)	전용 차량	오전	◦기관방문 : Homebush Boys High School(홈부쉬 남자고등학교)	시드니 1박
			오후	◦기관방문 : Chatswood Public School (채스우드 공립초등학교)	
3/25(토) (5일차)	호 주 (시드니)	전용 차량	전일	◦기관방문 : Secondary College of Languages(중등언어학교)	시드니 1박
3/26(일) (6일차)	호 주 (시드니)	전용 차량	전일	◦현장시찰 : Korean War Memorial (6·25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시드니 1박
3/27(월) (7일차)	호 주 (시드니)	전용 차량	오전	◦기관방문 : Marsden High School (마스던 공립중고등학교)	시드니 1박
			오후	◦현장시찰 : TAFE NSW Ultimo(TAFE 뉴사우스웨일스 울티모)	
3/28(화) (8일차)	호 주 (시드니)	항공	10:20 19:00	시드니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Ⅱ 방문 기관별 주요 정보 및 활동 사항

1 기 관 방 문

□ **시드니 한국교육원(Korean Education Centre in Sydney)**

○ **일 시 : 2023. 3. 22.(수)**

○ **장 소 : 시드니 한국교육원**

○ **참석자 : 권진 원장, 임영남 부원장**

○ **진행순서**

- 주요 참석자 소개
- 본원 주요 사업 및 호주와의 협력사업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 질의응답
- 기념품 전달 및 사진 촬영

○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

- 본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교육부가 설립한 43곳의 한국교육원 중 한 곳으로, 호주 정규교육 과정의 한국어 보급과 한글학교의 활동 지원, 호주 유학을 온 한국인 유학생 또는 재외동포 지원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음.
- 주시드니 총영사관의 일부 공간에서 1989년에 설립된 본원은 비교적 장기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호주 학생 간 국제교류와 호주 내 한국어 보급 사업(교육원이 직접 제공하는 강의 포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현재 직원 수는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상근직원 3명과 비상근 강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장은 교육부 파견, 부원장은 서울시교육청 파견 직원임.
- 주로 광복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문화원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NSW주 교육부와 각 급 학교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광복회 호주지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민족캠프를 추진하고, 광복장학회 등의 장학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 본원의 활동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 보급에 관한 사무임. 특히, 우리 원은 한국어 문화 경연대회 개최와 한국어 교과 담당 교원의 교류를 위한 협의체 운영 지원,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통해 호주 학교의 한국어 확산을 지원하고 있음. 이를 통해 호주 최대의 주인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48개 학교에 6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 지원과 관할 한글학교에 대한 재정 및 교재 지원, 학교장의 한국 방문 연수 지원, 학교별로 운영되는 한국의 날(Korean Day)와 같은 학교 비교과 활동의 지원 등 역시 궁극적으로 한국어 보급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본원은 단기적인 예산 지원보다 상호 관계 맺기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지속성 있는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담당 교원이 한국어 수업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험이나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언어교육 그 이상의 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상호교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학교장과의 호의적 관계라고 할 수 있음. 호주는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교장의 자율성이 높고, 결정권이 존중되기 때문임.
- 또한,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공동수업을 위해 호주 학교와의 상호교류, 자매결연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과 통번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한국과 호주의 학교가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원은 호주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장기적으로 온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한국 및 호주 교육 당국의

부분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상호방문으로 교류를 심화시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림.

○ 질의응답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답변 내용
규모에 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재정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 운영예산 전액은 교육부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됨. •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국제교류에 대해 비교적으로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본원 역시 한국어 보급을 위한 전폭적 재정을 지원하기보다 공동 분담을 통해 지속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호주 교육제도 중 선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 호주는 외국어, 언어교육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음. 이는 다문화·다인종이라는 호주 사회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함. • 호주 교육 당국은 모든 언어에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향후 방문이 예정된 중등언어학교(주 정부가 운영하는 정규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어가 배경이 아닌 학생에게 모국어와 영어를 모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은 어떻게 차별화되어 운영되는지?	• 이는 국가별로 문화원과 교육원이 모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업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문화원과 교육원이 모두 운영되고 있는 호주에서 문화원은 호주 국민(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 확대를 주요 운영목적으로 삼는 데 반해, 교육원은 재외동포와 각 급 학교,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한국어 교육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원 사항은?	• '학교가 어떤 외국어 교과 수업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요 결정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경향이 크고, 교육 내용의 세부 사항 역시 교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호주 정부는 다양한 언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음.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은?	• 호주는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교과서 보급도 하지 않고,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교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즉, 커리큘럼에 맞춰 다양한 주체들이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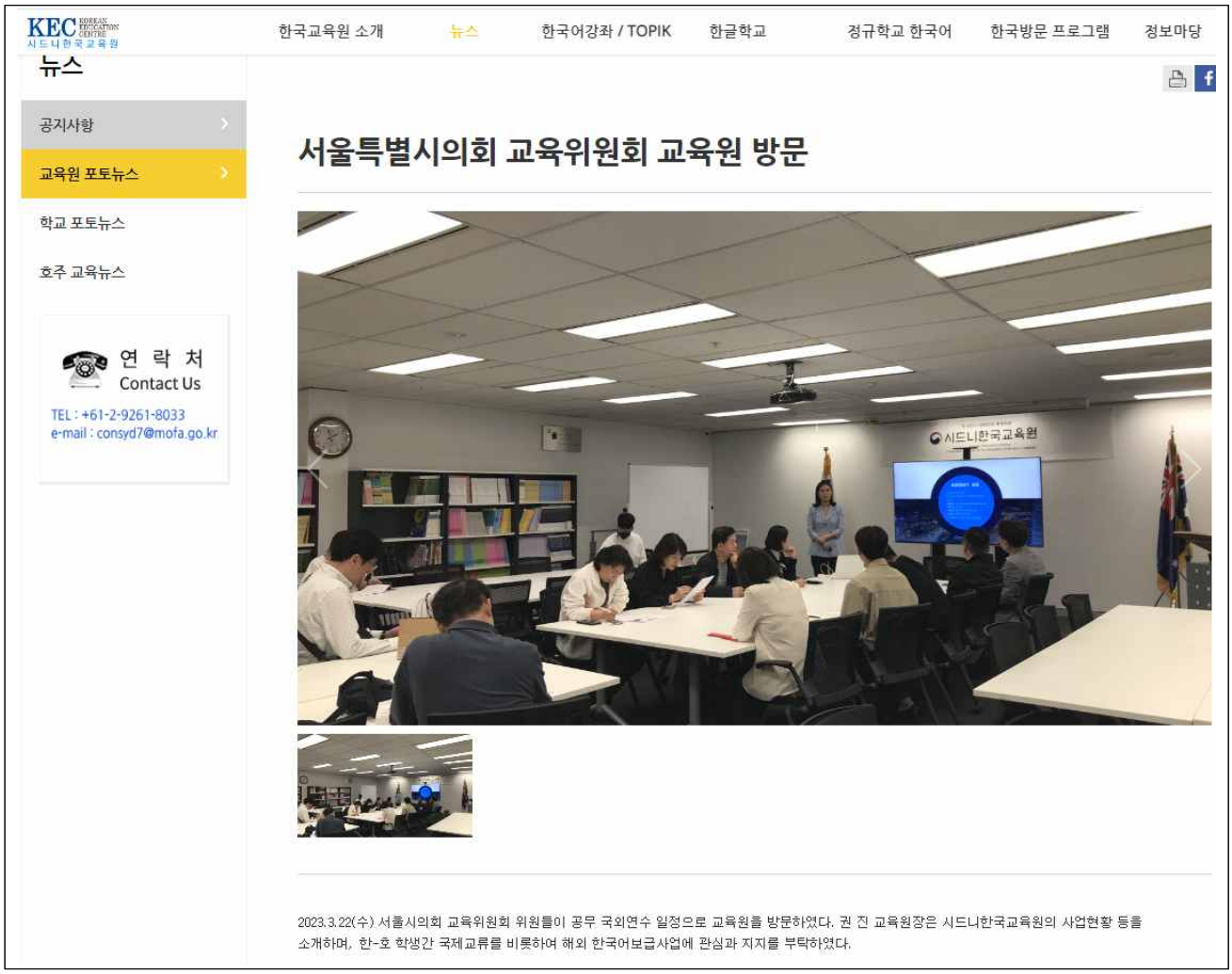
구 분	주요 답변 내용
	• 문제는 한국어와 같이 수요가 낮은 교과는 교재 제작과 활용 전반에 있어 담당 교사가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임. 이에 본원은 교육부 지원을 토대로 예시용(참고용) 교과서를 제작, 보급하여 교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 이번 방문으로 시드니한국교육원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과 한국어 보급 등을 위한 최일선 기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국제화 시대 한국어 보급 수준과 한-호주 간 국제교육교류 협력 현황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음. • 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상호방문이나 교류 확대 방안을 비롯한 여러 사항은 내실 있게 검토하여 한국과 호주의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음.

○ **기관방문에 따른 시사점**

-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어의 국제적 보급에 있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공동수업을 넘어 학교 간 자매결연에 기반한 상호방문을 비롯하여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0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법제도적인 기반은 갖춰졌고, 서울시교육청 역시 5대 서울교육 정책방향 중 하나로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을 제시했던 만큼 충분히 정책적 기반은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호주를 비롯한 국외의 교육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해야 할 것임.
- 한편, 시드니한국교육원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호주 상호교류 방문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견해임이 확인된 만큼 의회 차원에서 국제교류사업이 내실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무엇보다 한쪽의 일방적인 재정 지원보다 교류 당사국 상호가 일정 부분 책임 있게 재정을 부담해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권진 교육원장의 의견에 대해 다수의 의원이 공감하였음.
- 또한, 방문을 통해 호주 교육제도에서 학교 운영에서 학교장 권한이 크고, 교재 개발을 포함한 수업 전반에 있어 교원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자율성'이라는 특성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호주 교육을 만든 주요한 요인인지 대해서는 방문 기간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방문 기관의 홈페이지 홍보 자료**[1)]



1) http://www.auskec.kr/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223

○ 방문 사진

기관 프레젠테이션(1)	기관 프레젠테이션(2)
질의응답(1)	질의응답(2)
기념품 전달	단체 기념 촬영

❑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NSW Department of Education)

○ **일 시 : 2023. 3. 23.(목)**

○ **장 소 :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회의실**[2)]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 **참석자 : 실비아 커리쉬**(Sylvia Corish) **학생 지원 및 전문가 프로그램 담당관**(Executive Director, Student Support and Specialist Programs), **힐러리 휴즈**(Hilary Hughes) **지역사회 언어 및 국제화 프로그램 부서 국장**(Director, Community languages and International Programs) **등**

○ **진행순서**

- 주요 참석자 소개
- 호주 교육제도 및 교육부, 교육분야 주 정부 역점사업 등에 대한 소개 프레젠테이션
- 질의응답
- 기념품 전달 및 사진 촬영

○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

- 우리 교육부는 우리의 직장과 학교, 지역사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이 땅의 지속적인 관리인로서의 원주민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을 공유하는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Acknowledgement of and Welcome to Country)을 모든 행사에서 권장하고 있음. 특히, 의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 또는 학교를 주요 근거지로 삼았던 원주민을 소개함으로써 원주민 문화의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호주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준)주가 공유하고 있으며, 연방-(준)주-지역이라는 3단계의 계층에서 교육정책의 기획과

2) 기관 요청 등에 따라 섭외된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

실행·평가 등이 전개되고 있음. 연방이 고등교육과 국제교육 및 연구 분야에 집중한다면, 주 차원에서는 교원 훈련이나 학교 커리큘럼,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 등에 집중함.

-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DET)으로 유아교육 및 돌봄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과 규제, 공사립학교 및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3], 공립대학의 운영 등을 담당함.
- 2023년 3월을 기준으로[4] 우리 NSW주 정부는 도미닉 페로테이(Hon Dominic Perrottet) 주지사를 중심으로 앨리스터 헨스켄스(Alister Henskens)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겸 기술훈련부 장관, 마크 쿠어(Mark Coure) 다문화 장관과 함께 사라 미첼(Sarah Mitchell) 교육 및 취학전교육(Education and Early Learning) 장관이[5] 30만여명의 교직원과 함께 80만 여명의 학생과 2,200여 개의 학교를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교육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호주 최고의 교육시스템 제공(deliver Australia's best performing education system, up there with the best in the world)'을 목표로 장관이 부처의 전략과 의사결정을 총괄하고, 학교 기반시설(School Infrastructure NSW)과 학습 개선(Learning Improvement) 등을 담당하는 개별 부서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발표자인 본인이 속한 학교 성과 그룹(School Performance group)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 2개의 부서로 구분

---

3) 공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연방정부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공립학교는 주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임.

4) 방문 기간(2023.3.25.) 중 제58회 뉴사우스웨일즈주 의회 선거(Election of the 58th Parliament of NSW)가 시행되어 93명의 하원의원과 21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13년 만에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뉴사우스웨일즈주 노동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각이 2023년 3월 28일 구성되어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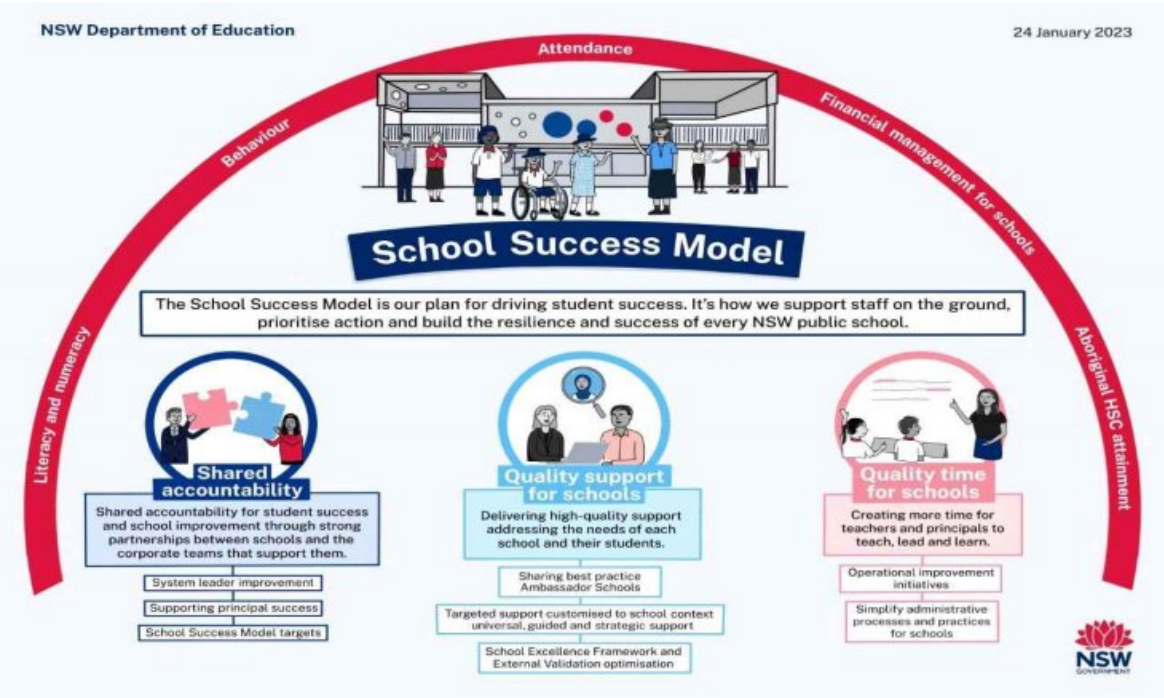
5) 한국은 장관의 직위명과 장관이 통할하는 부처가 일치하나 호주는 한 명의 장관이 여러 부처(청)를 관할할 수 있음. 사라 미첼은 주 정부 내에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교육표준청(Education Standards Authority)을 관할하고 있음.

됨. 우리 부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제고하고 양질의 교육과 교육 리더십이 학교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2,200개 이상의 공립학교(초중등학교, 특수목적학교, 전문학교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각 부서는 주 전체에서 적용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발표자가 속한 북부 학교 퍼포먼스 부서는 커뮤니티 언어 및 국제화 프로그램(CLIP, Community Languages and International Programs)이나 장애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프로그램(ASTP, Assisted School Travel Program)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우리 교육행정 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2018년부터 시행된 지역적 군집을 기준으로 20여 개의 학교(교장)의 활동을 지원하는 DEL(Director, Educational Leadership)이 있다는 점임. 이들은 학교 운영 전략 수립을 지원 또는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 주 교육부 차원의 주요 교육정책은 「2018-2023년 전략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이는 취학전교육부터 초·중등교육과 직업 및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수립됨. 동 계획은 유아교육과 학업적 성취, 공정함 등 6대 영역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전폭적 개선과 공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신감 제고, 인력에 대한 성과 독려 등을 추구하고 있음. 학생의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300여 명의 커리큘럼 및 지도를 위한 보조교장(AP, C&I-Assistant Principal, Curriculum and Instruction) 배치를 통한 교장의 리더십 및 정책역량 제고 지원
  - 코로나19 집중 학습 지원 프로그램(COVID ILSP, COVID Intensive Learning Support Program) :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퇴직 교원이나 임시교사 등을 대상으로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의 학습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HSC 최소 표준(HSC Minimum Standards) : 교육부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입학시험인 HSC 자격을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을 학생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 기준에 따르면, 읽기 · 쓰기 및 계산 능력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휴대 전화 요금제를 이해하고, 입사원서를 작성하며 기기 설명서의 안전 지침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춘다고 설정함.
- 학교 성공 모델(School Success Model) : 학생의 성과와 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증거 기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현재 실태(원주민의 HSC 성취도, 학생 태도, 문해·수리력과 같은 학습 상태 등)와 개선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전개하고 있음. (세부 사항은 그림 참조)[6]

〔그림〕 학교 성공 모델 구현을 위한 가치 체계



- 이 외에 교육부는 선택학교(Selective High School) 운영을[7] 통해

6) NSW Government, School Success Model > About the program https://education.nsw.gov.au/public-schools/school-success-model/school-success-model-explained (검색일 2023-04-11)

7) 이는 모든 과목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완전선택형(Fully selective)과 특정 교과(영어, 수학, 과학)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일부선택형(Partially selective), 농업 교과와 관련한 선택 수업을 제공하는 완전

학문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교원 양성과 관련하여 주 교육부는 국가 표준에 따라 4단계의 커리어 스테이지를[8]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교원 스스로가 자신의 교수학습 능력과 수준을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가이드를 제공 중에 있음. 이와 함께 초임 교사의 안정적인 학교 정착을 위해 임용 첫해에 경험이 풍부한 교사와의 멘토링, 교수학습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금 지원 등을 전개하는 프로그램(SSGT, Strong Start Great Teachers)을 시행하고 있음.
- 한편, NSW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학교 뉴스레터와 학부모-교사 상담, 학교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NSW Education Parent App' 운영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학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
- 마지막으로 학생 지원 및 전문가 프로그램(Student Support and Specialist Programs, SSSP)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발표자 본인이 운영을 총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방문 예정인 중등 언어학교(Secondary College of Language)를 포함한 학생 지원 사업이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음. 동 사업은 장애 학생의 통학 지원과 커뮤니티 언어 및 국제화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개별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모든 학생이 수준 높은 예술·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ASI(Arts, sport and initiatives)와 앞서 설명한 장애학생 통학 지원 프로그램인 ASTP(Assisted School

---

선택형 농업고(Fully agricultural high schools), 원격지 학생들을 위한 선택 수업을 제공하는 오로라 칼리지(Aurora College)로 세분화되어 운영됨.

8) 이는 호주의 교원을 위한 전문성 표준(Australian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ers)에 기초하여 제시되는 개념으로 크게 최초 입직하는 신규교사(Graduate teacher) 단계, 유능한 교사(Proficient teacher), 높은 성취단계의 교사(Highly Accomplished teacher) 그리고 지도자 단계 교사(Lead teacher)라는 4개의 단계로 구성됨.

Travel Program), 다양한 언어교육과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CLIP(Community Languages and International Programs) 그리고 학생의 정신건강과 행복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CW&MHS(Child Wellbe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의 주요 동향을 소개하면, 지속된 산불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양당 모두에서 최근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음. 또한, 금주 토요일에 시행되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음.

○ **질의응답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연방정부와 정책적 견해 차이로 인한 충돌은 없는지?	•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상호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소관하는 업무 영역에서도 일정부분 독립성이 보장됨. 다만, 교육철학의 차이에 있어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임.
5세 미만 아동의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이의 성장·발달을 고려하여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공교육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적극 전개되고 있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에게 돌봄뿐만 아니라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도 영향을 미쳤음. • 교육부를 관할하는 장관의 직함을 '취학전교육 및 교육부 장관'으로 명시하여 취학전 교육을 강조한 이유도 이와 같음.
NSW주의 환경 특성 상 학교당 학생 수 차이가 클 것 같은데, 학교의 학생 수 최소 단위는?	• 좋은 지적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시드니는 일부 학교에서 교실 부족으로 증축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인구가 매우 적음. 따라서 우리 주는 최소 5명은 있어야 학교를 유지한다는 원칙적 기준을 가지고 있음. • 다만, 학교 수만으로 학교 폐교 등을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가 폐교되면 소규모 지역사회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임.

구 분	주요내용
언어로 인해 이민자 자녀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기초학력 지원 방안은?	• 호주의 다문화적 특성으로 이민자 커뮤니티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상당수의 이민자 가정 학생들은 언어로 인해 학업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음. • 다만, 영어가 아닌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입학 초기 6개월 동안 수학(修學) 및 생활 능력 제고를 목표로 집중적인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Intensive English Centre를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음.
최근의 이민 동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 이민 동향은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국제 상황 등에 따라 매우 큰 변동성을 보임.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가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어에 대한 언어적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커짐에 따라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의 사례도 환경적 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주 정부는 유학생과 임시 거주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DE International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호주의 다문화·다인종적 특성에 맞춰 개별 학교가 충분한 역량과 사례를 가지고 있어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
NSW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사업이 있는지?	• 진로교육 추진에 있어 특별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는 않음. 다만, 우리 주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 진학의식을 고취하고자 지역의 명문대학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진로교육 운영에 있어 노동부 등 관계 기관 지원은 이뤄지는지?	• 직업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재정은 교육부에서 조성되는 편임. 다만, VET 교육과정의 경우 졸업 후 산업 현장의 기준을 맞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에서 일부 재정 지원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음.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통합교육 시행 여부)	• 우리 주 정부도 원칙적으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으나, 장애 수준에 따라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된 특수반(Special Class)가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우리 정책은 장애와 인종, 국적,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최대의 지원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구 분	주요내용
학력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는지?	• 우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문해력과 수리력 등을 측정하는 전국단위 학력평가(NAPLAN)를 매년 시행하여 학교별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음. 물론, 학교별 순위를 공개한다는 부분에서 반발도 있음. • 금년 최초로 CBTs(Computer Based Tests) 기반으로 시행된 NAPLAN은 학생 수준별 난이도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고, 벤치마크 지수를 제공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수학 능력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구성하고자 했음.
학생의 웰빙이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함. 우리는 최근 저학년의 자해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 자해나 자살 위기 학생 발생 시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부 등에 보고하고, 교육부는 법무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la)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사항을 공유, 적절한 조치를 모색함. •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 내 배치된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함. 그러나 모든 학교에 상담사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 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많게는 하루에 2천 건의 상담 내용이 접수되고 있어 정신건강에 관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공교육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하고 있는지? 또한, IB 도입에 대한 주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 공교육에서는 '도입을 고려'하는 단계이고, 그 외 영역에서는 일부 시행되기도 함.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IB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 수준과 대입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임. • 다만, HSC 이전에 대학에 조기 입학이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IB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HSC 최소 기준은 충족해야 진학이 가능함.

○ 기관방문에 따른 시사점

- NSW주 정부는 교육부를 관할하는 장관 직위명에 '취학 전 교육(Early Education)'을 명시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확대 차원에서 취학 전 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생애 초기의 교육

경험이 학생의 사회성 발달을 비롯해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9] 정책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서울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됨.

-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포함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보조교장제, 증거기반정책 모형에 기초한 학교성공모델(School Success Model), HSC 최소 표준 설정·관리는 기존 서울시 교육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반면, COVID ILSP(코로나19 집중학습 지원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시행 중인 키다리샘과 '소규모 학습그룹 조성' 측면에서 유사한 요소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편, NSW주 교육부는 다문화라는 국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도적인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음. 중등언어학교나 집중영어센터(Intensive English Centre) 사례는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대응한 특성화 정책을 발굴함에 있어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는 정책임.
- 주 교육부 관계자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함. 서울시교육청 역시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있는 만큼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최근 서울 교육정책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에 있어서 다양성에 큰 가치를 두는 호주에서도 교사의 교수학습 수준과 대입제도 등에 대한 우려로 공교육 도입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바, 동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9) 김기현·신인철(2012), 유아교육 및 보육 경험의 장기 효과, 한국사회학 46(5), 259-288쪽 참조.

○ 방문 사진

기관 프레젠테이션(1)	기관 프레젠테이션(2)
질의응답	기념 촬영
기념품 전달	단체 사진 촬영

❑ 홈부쉬남자고등학교(Homebush Boys High School)

○ **일 시 : 2023. 3. 24.(금)**

○ **장 소 : 홈부쉬남자고등학교**(Bridge Road, Homebush NSW 2140)

○ **참석자 : 캐빈 엘굿**(Kevin Elgood) **교장, 샤이반 엘라로**(Cheiban Elaro) **교감, 제니 달라마가스**(Jennie Dalamagas) **교감, 유경애**(Yu, Kyung-Ae) **한국어 담당 교원, 벤캇비디프레디 맬러말러**(Venkatvidipreddy Mallemala) **등 학생 대표단 6명 등**

○ **진행순서**

- 주요 참석자 및 기관 소개
- 학교 소개 프레젠테이션
- 학교 시설 시찰 및 수업 참관
- 질의응답 겸 차담회
- 기념품 교환 및 사진 촬영

○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

- 1936년 서부 시드니 교외에 설립된 본교는 우수한 교수·학습활동과 다양한 스포츠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1천여 명의 남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학교로, 전체 학생의 92%가 언어적 배경이 영어가 아닌 학생으로 구성된 다문화 학교임.
- 본교는 80명의 교원과 20여 명의 직원이 '안전, 학습, 존중'을 학교 운영의 주요 가치로 하고 Recte Et Fortiter(Upright and Strong)를 학교 모토로 삼아 모든 학생의 교류를 증진하고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학교 특성화 정책으로서 자폐스팩트럼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함.
- 학생의 학업 성취도 증진과 관련하여 본교는 학생의 학습성과를 파악하고 계발하기 위하여 전략기획 고문(Strategic Planning Adviser)을 두고, 문해·수리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음. 이를 통해

대학입학시험(HSC, Higher School Certificate)이나 전국단위 학력평가(NAPLAN, 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 외에도 7-8학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 수업(Enrichment Class), 학생의 다양한 재능 계발을 위한 악단(Drum Corps)과 체스리그(NSW Chess League) 등의 참여, NBA 농구선수로 활약하는 조나 볼든(Jonah Bolden)을 비롯하여 우수한 예체능 선수를 배출하는 다양한 운동부 운영 등을 통해 인성과 지성·감성 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소속 학생들이 HSC Art Express[10]에 출품을 하고, 2022년 ATAR[11] 점수 99.20을 받은 최우수 학생을 배출하며 90%의 높은 대학 입학률 등을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 외에도 본교 출신 학생들은 우수한 외국어 수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대학입학시험 성적을 통해 인문, 사회,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하게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
- 본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문화사회인 호주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임.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모국어가 영어인 학생은 150여명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 더욱 많음. 아랍어 150여명, 중국어(만다린어) 100여명, 한국어 70여 명 등 20여 개의 다양한 언어적 배경이 공존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호주 사회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본교가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유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도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 학교는 레노버 구글 크롬북(ChromeBook)에 기반한 BYOD 이니셔티브와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0) NSW주의 미술 교과 대학입학시험을 위해 제작된 예술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개최하는 전시
11) 고등학교의 내신 점수와 대학입학시험(주별로 상이)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나타낸 점수

○ 질의응답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학생회 선출 방식은?	• 개별 단위에서 학생들의 투표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선출되고 있으며, 학생의 리더십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자치능력을 높이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됨.
학생들이 각자 다른 배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지?	• 학생별로 넥타이에 부착된 배지(badge)는 소속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 여부, 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고 있음. 이를 통해 단체 활동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가 활동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많아 이로 인한 충돌도 있을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개인적으로 인종 문제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다문화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유치원(preschool)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확립됨. • 오히려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은 우리 지역이나 호주 사회의 매우 큰 장점이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함.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학생 개인은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 • 추가적으로 본교는 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를 토대로 학교 폭력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음.
학교가 표방하는 세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세 가치 중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임. • 학교 운영의 근본 목적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일이며, 이는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귀교의 정책은?	• 우리 학교는 4년 전부터 휴대폰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이를 꺼놓도록 하고 있음. 만약, 이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 휴대폰을 압수하고 있음. • 다만, 이는 모든 학교에서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의 교육정책마다 상이함. 본교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나 학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차원에서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러나 BYOD의 일환으로 개인 노트북이나 디지털기기 사용은 수업 중에 이뤄지고 있음.

○ **기관방문에 따른 시사점**

- 이번 학교 방문에 있어 공통으로 체감한 것은 학교장의 높은 열의와 리더십이었음. 학교 시설을 시찰함에 있어 수영부나 농구부, 악단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동아리 등)이 이뤄져 활동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다문화라는 가치 아래 학생들이 상호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주 교육청에서 브리핑을 받았던 학업성취도 제고 정책이나 다문화 교육의 양태 등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무엇보다 HSC 성적을 기준점으로 삼아 학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학교 서열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 또는 지역 단위 교육성과의 공개가 극도로 제한되는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 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가시화되어 공표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롭게 다가온 측면이 있음.
- 금번 방문은 다른 국가에서 수업 중 IT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사이버 폭력 등을 이유로 학교생활 중 휴대폰 사용은 제한하지만, 노트북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 정책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음. 서울시교육청 역시 디벗 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시력 약화 등을 비롯한 건강상 문제 등의 우려(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교육 관계자 모두가 디지털 교육 전환에 있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깊이 있게 성찰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한국어를 언어적 배경으로 가진 학생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나, 현지에서 한국어 교실이 구성될 정도로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었음.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호주 간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방문 사진

기관 프레젠테이션	학교 시설(외부) 견학
학교 시설(공작실) 견학	학교 시설(중국어교실) 견학
한국어 수업 참관	기념품 전달
단체 사진 촬영	학생회장단과의 기념 촬영

○ 방문 기관의 SNS 자료[12)]

12) https://www.facebook.com/homebushbhs/

❑ 채스우드초등학교(Chatswood Public School)

○ **일 시 : 2023. 3. 24.(금)**

○ **장 소 : 채스우드초등학교**(Pacific Highway Chatswood NSW 2067)

○ **참석자 : 로빈 스콧**(Robyn Scott) **교감, 제인 김**(Jane Kim) **교사, 애니 현**(Annie Hyun) **교사 등**

○ **진행순서**

- 차담회 겸 주요 참석자 소개
- 학교 소개 프레젠테이션
- 학교 시설 시찰 및 질의응답
- 기념품 교환 및 사진 촬영

○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

- 1833년 시드니 북부 채스우드 지역에 설립된 본교는 1,3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본교는 학생 중심의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모든 학습자의 잠재력 향상과 참여 유도,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성공적인 평생 학습자로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원주민을 포함한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기념하고 인정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비전은 본교의 학생 구성에 있어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 비중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문서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본교 학생 중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이 더욱 많음. 가정의 언어적 배경이 만다린어인 학생이 398명으로 가장 많고, 영어(207명), 광둥어(Cantonese, 162명), 한국어(84명), 힌두어(52명), 일본어(36명)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본교는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영어와 수학, 지리학 등 6과목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댄스나

스포츠 등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본교 교육활동의 특징은 두 명 이상의 교사가 함께 수업 기획과 운영 등을 시행하는 코티칭(Co-teaching)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임. 교사 신축 과정에서 개별 교실의 구성함에도 이러한 특징이 적극 고려되었음. 코티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협동심·자율성·자기주도 학습 능력 증진 등 다방면에 걸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다린어를 배우는 학생의 중국 문화 학습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LOTE(Language Other Than Englis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이중언어수업(Bilingual Program)을 시행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코티칭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이중언어 수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가 수준의 한국어 교사(Korean expert teacher)와 이중언어 교사(Bilingual teacher,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가능한 교사),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비이중언어교사(Non-bilingual teacher)의 협력 아래 한국어 수업과 한국어를 활용한 교과 수업(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CLIL)이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부분 이외에 교과수업 외의 활동에서도 학생의 통합, 다양성 수용도 제고 등을 위해 여러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매년 3월 21일 하모니 데이(Harmony Day)에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고 공유할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하모니 데이는 UN이 인정한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DERD)을 의미하고, 호주에서는 자국 안에서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는 문화들을 기념하는 날임.
- 공립 교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전개하는 NSW 주 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본교는 2023년 1월부터 신축된 교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운동장 등 외부 공간에 대한 공사가 일부 진행 중임.
- 학교 시설의 주요 특징은 옥상 놀이공간과 지상 가든, 1층에 있는

개방형 공간 등을 곳곳에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연을 체감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 외에 가변형 교실과 첨단 시설이 구축된 도서관, 다양한 특별교실 및 BYOD 이니셔티브에 따른 ICT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 **기관방문에 따른 시사점**

- 우선, 학교 시찰 과정에서 옥상 놀이공간과 지상 가든 등 학생의 놀이·휴식 공간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무엇보다 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자연환경을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개선 방안 모색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기후가 온화한 호주와 달리 사계절이 뚜렷하고 장마가 지속되는 우리나라의 날씨 특성이나 건축법규를 고려할 때 적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사례 적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중언어교육 추진은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다문화 교육의 선진 사례를 제공하는 본교의 교육은 '다문화' 학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다문화 시대 학생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정책 추진의 방점이 찍혀 있었음.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지역의 이중언어특구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발에 무산되었던 사례는 다문화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현실에서 '다문화 학생의 사회 적응'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발생한 것인바, 향후 이중언어 관련 정책 제안에 있어 방문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 전체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지향해야 할 것임.

- 한편, 수업 참관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교수·학습에 있어 코티칭의 적극적인 활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초학력 협력강사 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에 있어 퇴직교원이나 임용 대기 중인 예비교원 등을 활용한 코티칭에 대해서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방문 사진

기관 프레젠테이션(1)	분임별 토의
수업 참관	학교 시설(외부) 견학
기념품 전달	단체사진 촬영

❑ 중등언어학교(Secondary College of Language)

○ **일 시 : 2023. 3. 25.(토)**

○ **장 소 : 스트라스필드여자고등학교**

(116 Albert Rd, Strathfield NSW 2135)

○ **참석자 : 사나 즈레이카 교장**(Sana Zreika, Principal), **김아림**(Kim, Arim) **교사 등 한국어 담당 교원 11명**

○ **진행순서**

- 주요 참석자 소개 및 학교 소개 프레젠테이션
- 학교 시설 시찰
- 차담회 진행 및 질의응답
- 기념품 교환 및 사진 촬영

○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

- 1978년 설립되어 올해 45주년을 맞이한 중등언어학교는 NSW 대면 언어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13개의 캠퍼스에서 2,700여 명의 5~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3개 언어를 제공하고 있음. 매주 토요일 오전에 기존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학교를 운영함.
- 본교는 "모든 학생이 언어와 문화로 연결되는 다양하고 활기찬 학습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언어 학습의 우수성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언어교육 강좌를 무상으로 제공함.

  ※ 수강 요건 : ① 호주 정규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② 학생 개인의 언어적 배경에 해당(부모가 한국계 이민자인 경우 자녀가 한국어 수업을 수강할 수 있음), ③ 평일 학교에서 학습할 수 없는 언어
- 본교에서는 언어교육이 장·단기 기억력 개선과 공감 능력 및 창의성 함양, 다문화 이해 증진, 학업과 여행 등에 대한 기회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보고 학생들이 이를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본교는 NSW주 교육표준원(NSW Education Standards Authority, NESA)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문적인 강사가 수업을 제공하고,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여러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학생의 70%가 HSC의 상위 2개 범위를 받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짐. 이러한 장점들은 교육을 이수한 뒤 학생들의 소감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본교의 한국어 과정은 5학년부터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14명이 학습 단계에 맞춰 수업을 받고 있음. 교양 수준의 수업부터 대학입학시험(HSC) 준비반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음.

○ **질의응답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교원은 어떻게 모집되는지?	• 대부분 학교 교원 중에 해당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 자원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중등언어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고학년은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외국어능력을 키울 수 있어 장점이 되고, 저학년은 문화적 다양성을 몸소 체험하고 소속 학교가 아닌 학교의 학생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장점이 크다고 생각함. • 특히, 본교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은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대학입학시험(HSC) 준비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수업 참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HSC 준비를 목표로 하는 고학년 과정은 실제적인 문제 풀이와 입시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대학 입학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수업의 운영에 있어 입시에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음.

○ **기관방문에 따른 시사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토요일에 학교 시설을 빌려 학점이 인정되는 수업을 전개하는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학생의 수업

선택권 확보를 위한 수업 확대 방안의 한 유형을 미리 볼 수 있었음. 우리도 제2외국어 중 프랑스어나 독일어, 아랍어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교원 확보 등의 문제로 강의 수가 적게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동 사례는 단순히 언어 수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선택과목 확대 등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다 할 수 있음. 교육부 역시 개별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개방하는 '(가칭) 온라인 고교' 신설을 국정과제로[13] 제시했던 만큼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한 정책 개발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하는 사례였음.

- 2022년 유·초·중등통계를 기준으로 서울의 다문화 학생은 19,513명이고 외국인 가정 출신 학생은 6,038명으로,[14] 2만 5천여명의 학생이 한국어가 언어적 배경이 아닌 학생으로서 서울시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례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학교를 개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를 우리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요구되며, 중등언어학교와 같은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13) 대한민국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target=4&promise=15 (검색일 2023-04-11)
14) 한국교육개발원,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http://t2m.kr/1Zvw1 (검색일 2023-04-11)

○ 방문 기관의 홈페이지 홍보 자료[15)]

15) https://www.facebook.com/SecondaryCollegeofLanguages

○ 방문 사진

학교 소개 프레젠테이션	시설 견학
한국어 수업 참관	차담회 진행
단체 사진 촬영(1)	단체 사진 촬영(2)

❑ 마스던 고등학교(Marsden High School)

○ **일 시 : 2023. 3. 27.(월)**

○ **장 소 : 마스던고등학교**(8 Rhodes St, Meadowbank NSW 2114)

○ **참석자 : 랜스 베리**(Lance Berry) **교장**

○ **진행순서**

- 주요 참석자 소개
- 학교 소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학교 시설 시찰
- 기념품 교환 및 사진 촬영

○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

- 본교는 1959년 설립된 공립 학교로 7-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27년 동안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집중영어센터(Intensive English Centre)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 문해·수리력, 프로젝트 학습, 영재교육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맥쿼리 대학을 비롯한 지역사회 내 여러 유관 기관과 학생 웰빙 및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 본교 운영에 있어 강조되는 원칙인 CARE(Cooperate, Achieve and Respect Every Day)는 협동과 성취, 존중의 일상화를 독려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전반의 운영 규율을 확립하고자 제시된 것임. 이는 안전한 학교 환경의 유지, 배우는 장소로서의 교실 정체성 확립 등의 10대 원칙으로 세분화되고,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직무 수행의 기준이 되고 있음.
- 이 외에도 학교는 토론과 과학, 로보틱스, 뮤지컬/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비교과(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회 운영을 통해 학생의 리더십과 잠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본교가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본교는 주정부의 대대적인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따라 매도우뱅크 초등학교(Meadowbank Elementary School)와 함께 2022년 현재 위치에 교사를 신축·이전했음. 기존 학교 부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 건립에 활용될 예정임. 이번 시설 개선으로 전면이 개방되는 실내체육관과 인조잔디 구장, 실외 농구장, 드라마실 등을 비롯한 전용 교실 등 최첨단 기자재가 적용된 교육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본교의 공간적 특성 중 하나는 경계를 허무는 '가변형 교실'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를 비롯하여 과목의 경계를 허문 교육활동이 주목받고 있음. 우리 학교 시설은 이러한 활동이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상황에 맞춰 교실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가변형 교실을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학교의 공간적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정화장치를 통해서 학교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있고, 지상층(Ground Level)에는 장애 학생 학급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지원 시설들을 위치시킴. 그 외에 북쪽 건물에는 역사나 수학과 같은 교과 교실을, 서쪽 건물에는 예체능시설이나 드라마실 등을 위치시켰고, 각 건물은 축구장 1/2 크기로 디자인되었음.
- 또한, 학교 외벽에 그려진 그림들은 장어와 새 등을 상징하는데 이는 호주 원주민이나 지역적 특성 등을 상징화한 것임. 예를 들어 외벽에 그려진 장어는 본교가 위치한 메도우뱅크(Meadowbank)와 접해 있는 파라마타강(Parramatta River)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라마타는 원주민 언어로 "장어들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라는 사실에서 착안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

○ 질의응답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신축기간 중 학생 수용방안은?	• 원래 학교 위치와 현재의 위치가 달라, 새로 학교가 신축될 때까지 기존 교사를 활용하였음.
첨단 시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활동에 있어 기술 활용에 관한 견해는?	• 본인은 교육활동 중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본교는 이미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한 상황임. 다만, 최근 제기된 챗GPT를 이용한 과제 수행 논란 등을 고려하여 숙제를 부여하기보다는 교실 안에서 수행평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함. • NSW주 내 여러 학교에서 스마트폰 휴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본인은 이 역시 찬성하지 않음. 스마트폰을 통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수업 참여와 이해도를 신장시킬 수 있는 사례 역시 존재하기 때문임. • 다만, 기술 혁신과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교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문제 역시 문제로 지적됨. 과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육청 웹사이트를 해킹해 보안 취약점을 교육 당국에 알려준 사례도 있음. 당국이 400억 달러를 투입해 정보 보안 강화를 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한국에서는 유해성을 이유로 인조잔디 사용을 지양하는데, 본교는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함. 그 이유는?	• 우리 학교의 모든 시설이 인조잔디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일부 시설에 있어 인조잔디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천연잔디구장 관리를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를 인조잔디로 시공함. •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홍수가 가뭄이 잦아지고 있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천연잔디보다 관리의 용이성이 있는 인조잔디를 구축하게 되었음. • 본인은 교육부에서 인증한 인조잔디의 경우 학생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지 않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
귀교는 BYOD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본교는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한 크롬북을 권장하고 있으나 학생 개인이 기기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저소득 계층 학생에게 대여하기 위한 스마트기기를 200대 정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과제 수행을 위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귀교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및	• 호주에서는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방생 시 즉각적으로 조사 활동이 전개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구 분	주요내용
가해자 처분 방안은?	사항이 결정되나 무조건적 처벌보다 문제해결을 우선함. • 피해자는 Wellbeing Framework에 따라 사회복지사 2명이 전담하여 보호 조치를 모색, 실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

○ **기관방문에 따른 시사점**

- 공간 구성에 있어 도서관을 단일 층이 아닌 여러 층에 걸쳐 조성한 것이 인상적이었음.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이동 경로가 되어 학생이 도서관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을 확인함. 물론, 정숙한 도서관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도서관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시설 구성의 목적과 의미가 매우 돋보였음.
- 이와 함께 다양한 실내외 체육시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음. 다만, 이는 1천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의 여건에서는 벤치마킹에 한계가 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가변형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역시 최근 교육 현장에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시찰 중에 확인할 수 있었듯이 가변형 교실에서 공간 구분을 없앨수록 교원의 전달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가변형교실 운영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

  해당 사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공간 혁신을 추구함에 있어 디자인이나 운영의 편의성보다 교수학습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동 기관은 첨단기자재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었고, 학교장의 경영철학 역시 ICT 기술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럼에도 정보 보안이나 교원의 ICT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술 활용에 대한 이와 같은 우려들은 디벗을 포함한 교육정보화 추진 전반에 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바,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방문 사진**

기관 프레젠테이션(1)	기관 프레젠테이션(2)
내부 공간 시찰(1)	내부 공간 시찰(2)
기념품 전달	단체 사진 촬영

2 시 찰 기 관

☐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 일 시 : 2023. 3. 23.(목)

○ 장 소 : NSW 주립도서관(Macquarie Street, Sydney NSW 2000)

○ 기관 현황 및 주요 사항

- 1826년에 설립되어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자 세계 최대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도서관 중 한 곳인 동 시설은 5백만 권이 넘는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소장품을 가지고 있으며,[16] 음악 공연과 작품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수시로 개최되고 있음.

  ※ 도서관 소장물은 2백만여권의 도서와 120만개의 마이크로폼(Microforms), 110만여개의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신문과 지도, 건축계획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17]

- 주립도서관은 미첼 도서관(Mitchell Building)과 맥쿼리가 도서관(Macquarie Street Building) 등으로 나눠지며, 1900년대 초에 건립된 미첼 도서관은 열람과 전시공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은 맥쿼리가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수행함.

- 특히, 미첼 도서관은 입구에 들어서면 대리석으로 재현된 테스먼 지도(The Tasman Map)와 탁 트인 개방감과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으로 구성된 넓은 열람실(Reading Room) 등은 도서관의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줌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음.

- 방문일 현재 주립도서관이 소유한 성소수자(LGBTQIA+)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PRIDE (R)EVOLUTION'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Imagine…the Wonder of Picture Books'

---

16) NSW Government, State Library of NSW
https://www.service.nsw.gov.au/nswgovdirectory/state-library-nsw (검색일 2023-04-10)

17) State Library of NSW, First time here?
https://www.sl.nsw.gov.au/research-and-collections/using-library/first-time-here (검색일 2023-04-10)

등이 진행되고 있음. 금번 방문한 주립도서관은 이처럼 단순한 장서 보존과 열람이 아닌 종합적인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동 시설은 공공기록물을 포함하여 호주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보존을 총괄하는 보존 도서관(Deposit library)이자 디지털 기록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자료에 대한 영구적인 보존 및 열람을 지원함.[18)]

○ **현장 시찰에 따른 소감 및 시사점**

-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은 도서의 대출·열람 또는 학습을 위한 열람실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역할이 집중된 상황임. 반면, 동 도서관은 각종 공연과 미술 전시회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이와 함께 도서관이 시민의 곁으로 다가서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영어가 언어적 배경이 아닌 시민을 위해 60개 언어의 장서와 잡지·신문을 제공하고, 저녁 시간에 도서관 시설을 개방하여 작가 초청 강연이나 토론회 개최, 라이브러리 바(bar)에서의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Nights at the Library'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점들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을 포함한다)의 이용률 및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교육청 산하 도서관도 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다수가 20시 전후까지 개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 단순히 도서 제출이나 열람 업무에 한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됨.
- 다만, 서울시교육청 산하 개별 도서관(평생학습관을 포함한다)과 주립도서관으로 지역도서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 시설과 직접적

18) State Library of NSW, Legal deposit
https://www.sl.nsw.gov.au/research-and-collections/building-our-collections/legal-deposit (검색일 2023-04-10)

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동 시설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임.

○ **시찰 사진**

단체 사진 촬영(1)	단체 사진 촬영(2)
내부 공간 시찰(1)	내부 공간 시찰(2)
내부 공간 시찰(3)	시설(외부) 견학

❑ 6·25 한국전쟁 참전기념비(Korean War Memorial)

○ 일 시 : 2023. 3. 26.(일)

○ 장 소 : 무어파크 북쪽 6.25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Cleveland St, Moore Park NSW 2021)

○ 현황 및 주요 사항

- 호주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하여 한국에 병력을 파견한 16개의 참전국 중 한 곳으로, 17,164명을 파병(호주 군인, 선원, 공군 병사 및 간호사 등)하여 346명이 전사하였음.[19] 특히, 1950년 9월부터 작전에 참가한 호주 제3대대는 사리원 전투에서 후퇴 중인 북한군을 격멸해 큰 공을 세운바 있고, 이후 영유리 전투, 박천 전투, 가평 전투, 마량산 전투 등에서 뛰어난 전투능력을 보임.[20]
- 가평전투는 6.25 전쟁에서 호주군이 가장 큰 공훈을 세운 전투임. 가평전투에서 800여 명의 호주군은 캐나다군과 함께 1만 5천여명의 중국군을 전멸시키고 서울을 점령하는 것을 막은 바 있고, 두 대대는 모두 이와 같은 공을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의 표창을 받았음.[21]
- NSW주 정부와 한국 정부, 재향군인 단체 및 시드니 한인 단체에 의해 2009년 7월 공식적으로 헌정된 참전기념비는 힘(Strength)을 상징하는 원형의 돌담과 태극과 음양을 상징하는 중앙의 도로 안에 회복(Regeneration)의 의미를 담은 금속의 무궁화와 추모·기억의(Remembrance)의 의미가 담긴 콘크리트 칼날(한국의 험준한 산을 형상화)로 구성되어 있음.[22]
- 특히, 기념비에서 강철과 청동으로 만들어진 136개의 무궁화는 뉴사우스웨일즈 출신의 전사자 개개인을 상징하고,[23] 한국의 산(풍

---

19) 재한유엔기념공원, '유엔군 지원 현황, 안정자 및 전사자 현황' https://www.unmck.or.kr/kor/02_unmck/?mcode=0402010300 (검색일 2023-04-10)

20)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컬렉션/토픽, "6.25전쟁" https://theme.archives.go.kr/next/625/warEnterNation06.do (검색일 2023-04-10)

21) 호주 국립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Korean War" https://www.nma.gov.au/defining-moments/resources/korean-war (검색일 2023-04-10)

22) https://www.centennialparklands.com.au/visit/history-and-heritage/memorials-gates/korean-war-memorial

경)을 묘사한 각각의 조각에는 전투명예훈장을 받은 호주인과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전사한 호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24]

○ **진행순서**

- 참전기념비 참배 및 헌화
  - ▶ 6.25전쟁 참전 현황 소개 및 참전기념비 설립에 대한 설명
  - ▶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 ▶ 참전기념비 헌화
- 사진 촬영

○ **현장 시찰에 따른 소감 및 시사점**

-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과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이 이뤄진 시점이라는 점에서 서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가 국가에 대한 호국영령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
- 특히, 가평전투에서 호주군은 수적 열세와 고립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캐나다 등의 참전군인과 함께 고지를 사수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와 함께 호주라는 먼 타지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희생정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그들의 희생을 되새기면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참배와 헌화를 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음.
- 또한, 기념비 방문을 통해 유공자의 훈공을 되돌아보고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 등을 돌아볼 수 있었던 만큼, 서울 학생들이 국립 서울 현충원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의 현충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물을 관리·홍보하는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23) Monument Australia, "Korean War Memorial" https://monumentaustralia.org.au/themes/conflict/korea/display/22167-korean-war-memorial (검색일 2023-04-10)

24) NSW War Memorials Register, "NSW Korean War Memorial, Moore Park" https://warmemorialsregister.nsw.gov.au/memorials/nsw-korean-war-memorial-moore-park (검색일 2023-04-10)

○ 시찰 사진

참전기념비 전경	단체 사진 촬영
참전기념비 참배(1)	참전기념비 참배(2)
참전기념비 참배(3)	참전기념비 헌화

❑ 테잎 울티모 캠퍼스(TAFE NSW Ultimo)

○ **일 시 : 2023. 3. 27.(월)**

○ **장 소 : 테잎 울티모 캠퍼스**(651-731 Harris St, Ultimo NSW 2007)

○ **참석자 : 후미 퍼시벌(fumi percival) 글로벌 협력 코디네이터(Global Engagement Coordinator), 라우신 라먼(nausheen rahman) 정책 및 산업 협력 디렉터(Director, Policy and Industry Engagement) 등**

○ **진행순서**

- 주요 참석자 소개
- 호주의 교육훈련제도 및 학교 소개 프레젠테이션
- 질의응답 및 기념품 교환
- 학교 시설 시찰 및 사진 촬영

○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

- 호주의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체제는 중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총 10단계에 걸친 호주의 교육 및 학위 인증제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ustralian QF)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TAFE를 포함하여 VET를 제공하는 등록교육기관(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 RTOs)은 Australian QF에서 두 번째 단계인 Certificate Ⅱ부터 7번째 단계인 학사(Bachelor Degree)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210만여 명의 학생이 3,500개 이상의 등록교육기관, 22만 5천여명의 교직원을 통해 68개의 트레이닝 패키지(Training Packages)를 기반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음.
- 현재 호주의 VET 체계는 호주의 기술품질국(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ASQA)과 노동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and Workforce Relations), 주

교육부 등 여러 유관 기관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호주의 VET 체계는 도제훈련과 자격제도 개편, VET에 종사하는 인력의 역량 제고 등을 최우선으로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단위자격인증제(Micro-Credentials) 확대와 VET 수강을 위한 대출 지원 대출 확대,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VET 내실화 등에 있어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 TAFE 뉴사우스웨일즈(TAFE NSW)는 호주에서 가장 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공급 기관으로 150개가 넘는 캠퍼스와 1,200개가 넘는 코스 및 학위, 2만 5천여 개 산업체와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46만 8천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음.
- 우리는 관광과 로봇공학, 농업, 소매, 건강, 경영 및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훈련 또는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접근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장애 학생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전개되고 있음.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사와 대학을 비롯한 IT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기술적 능력 향상 및 대학으로의 진학 기회 확대 등을 추구함.
- 동 기관은 단순히 호주 최대의 직업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피지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위해 유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장학금 제도와 언어강좌(영어),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의 과정 이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2008년 이후 1,300명이 넘는 학생이 국제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TAFE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바 있고, 이 중 일부 학생은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시드니에 남아 풀타임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서원대와 안산대, 삼육보건대, 재능대 등 여러 전문대학과의 협력 사례가 있음.

○ 질의응답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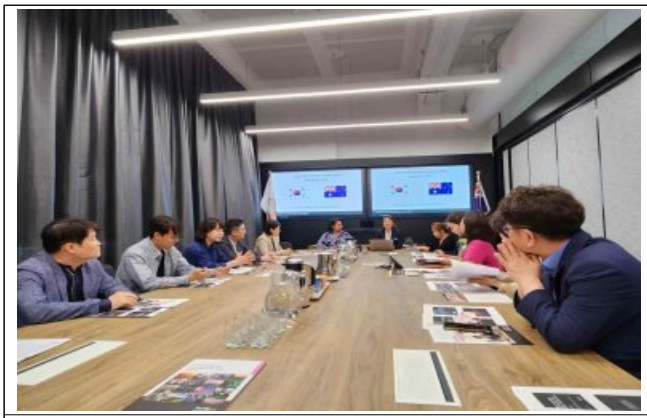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사 수급 방안은?	• 본교는 교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직업 경험과 학위를 요구하고 있음. 다만, 실무를 지속하면서 현장 여건을 교육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제 교원이나 보조교사를 적극 활용하는 편임. • 이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교수학습 전반의 변화·혁신을 유도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 학교와의 직접적인 교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	• 최근 성동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용접(Welding)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음. • 코로나19라는 상황의 특수성과 단기교육과정이라는 측면이 있었으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며, 본교는 향후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교류가 전개될 수 있기를 희망함.

○ 현장 시찰에 따른 소감 및 시사점

- 2022년부터 직업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체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직업계고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 130여개의 캠퍼스에서 연 수천여 강의를 제공하는 이뤄진 동 기관의 사례는 특성화고 및 지역(전문)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과수업 다양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큼.
- 더욱이 TAFE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현장 여건의 즉각적 대응을 위해 본래 직업과 겸직하는 형태의 시간제 교원이 많다는 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2조에 규정된 산학겸임교사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차원에서 향후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산학겸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하였음.
- 다만, 동 기관이 우리나라의 전문학사 과정 등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어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부산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 국내 다수의 전문대학 등과 TAFE가 이미

상당한 교류 협력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직업교육기관과의 협력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향후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직업교육 및 진로 체험을 위한 국외 전문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시찰 사진**

	
기관 프레젠테이션	기념품 전달
조리실습실 방문	복도 내 의상전시공간 방문
조리실 연계 식당 방문	단체 사진 촬영

Ⅲ 주요 시사점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주요 시사점 및 성과

○ **서울시 교육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사례 수집 및 분석**

- 첨단기자재 및 ICT 기술 활용 정책의 보완방향 모색
  - ▸ 사이버 불링, 해킹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교원의 ICT 능력 함양 문제 등으로 ICT 기술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
    ⇒ 서울시교육청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디벗, 전자칠판 등의 추진에 있어 사회적 우려가 불식되고 보완점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요구

- 교육환경 개선(학교 공간 혁신)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 ▸ 학교 곳곳에 특징적인 놀이(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놀이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하고, 공간의 개방감을 중요시하는 설계(전면이 개방되는 실내체육관, 옥상 가든 등)를 통해 자연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개선책 검토 필요
  - ▸ 방문이 이뤄진 다수의 학교에서 가변형 교실의 적극적 활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나치게 넓어진 면적으로 인해 교사의 전달력이 저하되는 현상도 관찰되는바, 시설 설계 및 활용에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 이중언어교육, 언어교육 정책 및 국제화 프로그램 개선방안 모색
  - ▸ 사업 추진에 있어 특정 타겟층에 집중하기 보다 학생 전체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의 목적성을 가져야 하고, 코티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
  - ▸ 다양한 언어를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등언어학교, 영어 능력 부족에 따른 수업 결손 보완을 위한 집중영어센터 등 (언어) 학습 지원을 위한 우수사례를 파악

○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신규 교육정책 아이디어 발굴**

- 공교육에서의 취학전교육(조기교육, Early Education) 확대
- 각종 전시 및 지역 유산 관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운영 사례를 파악
- 130여개의 캠퍼스를 기반에 둔 TAFE NSW 모델을 참고하여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한 직업계고 간 네트워크 구축 모델 구상
-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에 기반을 둔 HSC(대학입학시험) 최소 표준 및 학교성공모델 사업, HSC 성적에 기반을 둔 학교경영 실적 관리 등의 사례·현황 파악

○ **서울시교육청(각급 학교 포함)과 NSW주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한-호주 교육교류협력에 대한 시드니 한국교육원의 의지 확인
- TAFE NSW의 직업교육 관련 교류 협력 확대 의사 확인

□ 의정활동 활용계획

○ **의원 의정활동 시 방문 또는 시찰을 통한 시사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를 생산, 지원**

- 서울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개축 시 역사성을 살린 공간이나 전시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
-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과 연계하여 취학 전 교육 확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과 고민을 당부하는 등의 정책제안을 모색

○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서울시교육청이 기추진하는 관련 정책 기획·운용 시 활용 방안 마련 및 기타 논의사항에 대한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 **한-호주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및 지원**

- 시드니한국교육원, TAFE NSW 등 방문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 서울시교육청(각급 학교 포함)과 호주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교류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 적극적인 교류 의지를 확인한 TAFE NSW 등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MOU 체결 지원 추진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학술논문**

- 김기현·신인철(2012), 유아교육 및 보육 경험의 장기 효과, 한국사회학 46(5), 259-288쪽.

○ **웹페이지 등 기타 자료**

- 방문 기관 또는 시찰기관 홈페이지
  - NSW주정부 : https://www.service.nsw.gov.au/
  - NSW주 교육부 : https://education.nsw.gov.au/
  - 시드니 한국교육원 : http://www.auskec.kr/
  - NSW주립도서관 : https://www.sl.nsw.gov.au/
  - 홈부쉬남자고등학교 : https://www.facebook.com/homebushbhs/
  - 이중언어학교 : https://www.facebook.com/SecondaryCollegeofLanguages

- 기타 페이지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컬렉션/토픽, "6.25전쟁", https://theme.archives.go.kr/next/625/warEnterNation06.do
  - 대한민국 대통령실, 120대 국정과제 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target=4&promise=15
  - 재한유엔기념공원, '유엔군 지원 현황, 안정자 및 전사자 현황'. https://www.unmck.or.kr/kor/02_unmck/?mcode=0402010300
  - 한국교육개발원,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http://t2m.kr/1Zvw1
  - 호주 국립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Korean War", https://www.nma.gov.au/defining-moments/resources/korean-war
  - Centennial Parklands, "Korean War Memorial", https://www.centennialparklands.com.au/visit/history-and-heritage/memorials-gates/korean-war-memorial

- Monument Australia, “Korean War Memorial” https://monumentaustralia.org.au/themes/conflict/korea/display/22167-korean-war-memorial
- NSW War Memorials Register, “NSW Korean War Memorial, Moore Park”, https://warmemorialsregister.nsw.gov.au/memorials/nsw-korean-war-memorial-moore-park